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IT금융경영학과	이름	정*욱
파견국가	미국	파견도시	Saint Paul, Minnesota
파견대학	Concordia University	파견기간	2017-2학기, 2018-1학기
귀국여부	예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제가 교환학생으로 간 대학교는 미국에 캐나다 국경과 맞붙어있는 미네소타 주 주도 세인트폴에 위치해 있는 대학교에서 교환학생 생활을 보냈습니다. 공항과의 거리는 차로 15~20분 정도의 거리로 그리 멀지 않습니다. 또한 바로 옆에 있는 미네아폴리스라는 도시와 쌍둥이 도시라고 부릅니다. 한국으로 따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천안, 아산과 같은 도시들처럼 바로 옆에 붙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교의 규모는 순천향대학교의 3분의 1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교가 굉장히 작고 주변에 있는 타대학교에 비하면 학생수도 꽤 적습니다. 그래도 있을 만한건 다 갖추고 있고 학교를 다니는데 불편한점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학교가 작고 아담하다보니 그 학교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더 친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어디 다른 학교로 교환학생을 간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학생들도 엄청 많고 학교가 커서 정말 친한 친구를 사귀는게 어렵다고 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시설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순천향대학교처럼 강의실, 카페테리아, 운동장, 체육관, 서점, 도서관, 기숙사, 휴게실, 게임방 그리고 사람들이 다같이 모여서 행사나 여러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학교위치가체가 시골에 있지도 않고 도심 중간에 있지도 않은 그런곳에 위치해 있어서 너무 붐비지도 않고 너무 한적하지도 않은 분위기 입니다.</p>
2017-2학기, 2018-1학기 수업	<p>저는 2017-2학기 5과목, 2018-1학기 4과목 총 1년동안 9과목을 들었습니다. 첫 학기부터 말씀드리자면 교환학생으로서 필수적으로 그 학교에서 들어야 하는수업, 경제학, 파이낸스, 영어글쓰기, 피아노 이렇게 5과목을 들었습니다. 수강신청을 할 때에도 한국에서 듣기 힘들고 수업방식도 괜찮고 영어로 말할 기회가 많은 수업에 초점을 맞추어 신청하였습니다. 일단 교환학생이 필수적으로 들어야하는 수업에서는 그 학교에 있는 교환학생들끼리 듣는 수업입니다. 모두 국제학생으로 한국,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멕시코 등 정말 각국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닌 학교에는 한국인이 저 포함 총 두명 있어서 그 수업에는 한국인이 두 명 밖에 없었습니다. 수업방식은 어떤 한 주제로 조별로 발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반학기 짜리 수업이라 두달정도 수업을 하고 종강을 하였습니다. 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수업 내용 자체가 재미는 있지않은 내용이라 재밌지는 않았습니니다. 그래도 그 수업을 통해서</p>

정말 다양한 나라와 다양한 친구들을 사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학, 파이낸스, 글쓰기, 피아노과목은 한국 에서처럼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고 과제를 내주는 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과제 뿐만 아니라 쪽지시험이 매주마다 있었고 글쓰기수업의 경우에는 한달에 에세이를 2~3개는 써서 제출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수업을 듣는 저를 제외한 친구들은 영어를 모국어처럼 사용을 하는 학생이어서 저랑 실력차이가 정말 많이 났습니다. 성적을 매기는 방식이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지만 저는 좋지 못한 성적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그 수업을 들으면서 라이팅 실력도 늘고 또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나머지 경제, 파이낸스 과목은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과제가 나왔고 피아노 수업의 경우에는 그 다음 수업시간까지 오늘 배운 곡 연주를 연습해오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날 배운 곡은 연습실에 가서 연습을 하고 수업을 가기전에도 한번 더 연습을 하고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2018-1학기 수업을 신청할 때에는 첫학기때 들었던 수업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알차고 영어를 최대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수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에 어떤 수업이 있고 어떤 수업이 저에게 맞는지 잘 몰라 이미 학교를 오래 다녀본 친구들과 교수님 그리고 제 Tutor 와 Advisor들에게 수강신청 상담을 자주하였고 그렇게 해서 2018-1학기에는 마케팅, 경영, 커뮤니케이션, 역사 수업을 들었습니다. 일단 마케팅과 경영수업은 제 전공을 대체하기 위한 과목이었고 나머지 두개는 GBS 수업을 대체할 과목이었습니다. 두번째 학기에는 이미 첫 학기를 듣고 난후라서 그런지 수업을 들을 때에도 조금 더 수월했고 익숙해졌습니다. 또한 한 학기동안 친해지고 얼굴이 익숙한 친구들이 수업에 들어가보니 같은 수업을 듣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전공 2과목은 첫 학기와 마찬가지로 과제와 쪽지시험이 많이 있었고 마케팅 수업의 경우에는 팀프로젝트가 있어서 과제양이 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수업을 같이 듣는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었고 영어를 말할 기회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같이 동영상 촬영해서 만들고 편집하고 과제 내용에 대한 페이퍼도 조원들과 같이 20페이지 넘게 쓰면서 정말 친해졌습니다. 조별과제를 하면서 한국에서 처럼 물론 마찰도 있었고 맘에 들지 않는 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을 맞춰 나가고 조정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어를 아는 사람이 없으니 영어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하기 때문에 영어실력 또한 더 늘었던 것 같습니다. 또 나머지 GBS를 대체하는 두 과목은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시고 수업을 같이 듣는 친구들과 토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커뮤니케이션 수업 같은 경우에는 추천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다른 그 어떤 수업보다 수업을 같이 듣는 친구들과 말할 기회가 많고 이론적인 내용을 배운다기 보다는 정말 실무적이고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 등을 배우기 때문에 내용이 딱딱하지 않고 재미있었습니다.

추천과목, 비추천과목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추천하고 싶은 과목은 한국에서 듣지 못하는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대학교는 과별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안에 있는 학생끼리 같이 듣기 때문에 전공은 중

	<p>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술, 음악, 스포츠 관련된 수업이나 영어 말하기를 많이 하고 싶은 분은 커뮤니케이션 수업이나 'Public Speaking' 이라는 수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추천과목에 대해서는 제가 간 학교수업시스템에서 제일 빠른 수업이 오전 8시인데 너무 아침 일찍 있는 수업은 듣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잠이 많은 편이라 오전 9:30분 이후에 있는 수업을 주로 들었습니다.</p>
<p>프로그램 운영</p>	<p><i>외국인 학생을 위한 지원현황</i> 예) 오리엔테이션, 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 담당부서, 담당자명, 상담 프로그램 등</p> <p>저는 08/21/2017에 미국에 도착하여 바로 그 다음날 오리엔테이션에 갔습니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형식적인 내용이 주였고 각국 나라에서 온 인터내셔널 학생들이 앉아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따지면 국제교류처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분들이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교환학생을 위한 프로그램들도 있는데 기억에 남는 것은 순천향대학교에도 있는 글로벌축제와 같은 'Cultural fair' 라는 행사가 있는데 각국 나라별로 대표하여 그 나라를 대표하는 음식, 문화, 놀이 같은 것을 부스별로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매 주 여러가지 행사가 있고 그 행사에 가게 되면 항상 맛있는 것도 준비되어 있고 또 다른 외국인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p> <p>담당부서를 말씀드리면 'International' 부서가 있는데 담당자명은 'Colleen' 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이 분은 한국남편을 둔 직원 분 입니다. 그래서 한국말도 조금 알고 한국학생들에게 더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항상 제가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다 약속을 잡고 상담을 하면 정말 친절하게 답변해주고 가서 또 시간이 되면 둘이 얘기를 나누기도 합니다.</p>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일단은 미네소타 주가 캐나다 국경과 맞붙어 있어 상당히 추운 지역에 속합니다. 제가 도착했을 당시 8월에는 날씨가 후덥지근 했고 쌀쌀해지기 시작한건 10월 말부터 추워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좀 자주변해서 어떤 때는 10월이 지나서도 따뜻할 때도 있고 추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첫눈은 10월에 첫눈을 본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추위가 시작 되는건 첫 학기가 종강하고 12월부터 2월정도까지입니다. 제가 추위를 잘 타지않아서 나름 버틸만하다고 느꼈지만 추위를 많이 느낀다면 내복이나 두꺼운 의류를 많이 들고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겨울에는 영하 30도넘게 떨어지기도 하고 또 날씨가 좋을 때는 그렇게 춥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친구들과 차를 타고 이동하였고 실내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그렇게 춥지는 않았습니니다. 미국이 한국 처럼 밖에서 놀거리가 많은 편은 아니라 보통은 집안에서 친구들과 노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눈은 4월에 폭설경보가 내릴 만큼 눈은 정말 지겹도록 옵니다. 그리고 날씨가 따뜻해진건 3월부터 따뜻해집니다. 그런데 날씨가 상당히 변수가 많아서 어떤 때는 눈이 오기도 하고 4월이 지나면 날씨가 더워집니다. 제가 떠날 당시 5월달에는 정말 더웠습니다.</p>
안전	<p><u>현지 안전 상황</u></p> <p>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면 미네소타 주 가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주라고 꼽힐 만큼 좋은 주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미국을 가기전에 제일 걱정했던 것이 치안, 안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동안 저는 단 한번도 그런 위험을 느껴본적도 없었고 미네소타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정말 친절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다른 많은 주를 다닌건 아니지만 미네소타에 지내면서 정말 안전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밤 늦게 혼자 거리를 다니는 건 친구들이 위험하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보통 밤이 되면 기숙사나 친구집 안에서 놀았습니다.</p>
숙소	<p><u>학교기숙사(0) 홈스테이 () 외부 숙소() 기타()</u></p> <p>두 학기동안은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기숙사 이름은 'Holst hall'이라는 곳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학교에는 신입생 전용 남,여 기숙사가 따로 있고 제가 지낸 기숙사는 남녀가 같은 건물에 살고 신입생이 아닌 학생들이 지내는 기숙사였습니다. 조금 놀랬던 것은 남, 여가 같은방에 살지는 않지만 남자, 여자가 방에 왔다갔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지 남학생과 여학생의 교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규칙에 관해서는 통금시간도 없고 엄한 규칙이 없습니다. 다만, 서로간의 예의와 소음에 관해서는 조심해야됩니다. 그리고 기숙사 보안이 심해 기숙사 건물 현관, 엘리베이터, 방 이렇게 3번 학생증카드로 인증을 하고 들어가야합니다. 그래서 학생증을 꼭 잘 챙겨다녀야 좋을 것 같습니다.</p>
식사	<p><u>학교 Meal Plan () 학교식당 개별이용 (0) 홈스테이 ()</u> <u>외부식당 () 직접 요리 (0) 기타 ()</u></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대부분의 학교에는 밀플랜이라는 것이 있는데 학기당 돈을 지불하여 밥을 먹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저는 밀플랜을 신청하지 않고 기숙사 룸메이트 친구들과 요리를 해먹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식당에서는 먹고 싶을 때 가서 사먹었습니다. 학교식당에서는 대부분 햄버거, 샌드위치가 대부분이고 가끔씩 아시아 음식도 나와 전반적으로 맛은 괜찮은편입니다.</p>
교통	<p>통학방법, 시내교통, 주요도시 이동 관련</p> <p>학교에서 5분거리에 전철이있는데 어디 식당을 가거나 갈일이있을 때 대부분은 친구들의 차를 타고 이동하였습니다. 그래서 차가 있는 친구들을 사귀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200만원	한국>미국 110만원, 멕시코>한국 90만원
Fees	<p>교환학생 파견 시 Tuition의 경우, 양교 협약에 의해 면제가 됩니다. 학교별로 Tuition 이외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상이한데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상세히 적어주세요.</p> <p>예) University Support Fee, \$3,000</p>	<p>등록금을 제외하고 기숙사비와 Student service fee가 있는데 그 비용을 포함해서 4900달러 정도로 학기당 5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p>
보험료	<p>자매대학에서 권하는 보험을 샀는지, 국내에서 해외 여행자 보험을 사갔는지 여부 및 보험 비용을 알려주세요.</p>	<p>보험료는 한국에서 떠나기 전 유학생 보험으로 1년을 들었는데 비용은 30만원 정도 였습니다.</p>
숙소	학기당 3,425 달러	
식비	한달 30~40만원	
교통비	교통비는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책값	책은 아마존에서 렌트를 했는데 책당 20~30달러 정도입니다.	

기타1		
기타2		
합계	일년동안 2000~23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미리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분량 자유)*

출국 전 그 나라에 아는 친구가 있다면 미리 연락을 해서 친구들을 소개받거나 차가 있는 친구라면 공항에 도착했을 때 픽업을 부탁 하는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또한 각종서류같은것도 혹시 모르니 미국에 들고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짐을 싸실때에는 미국에서 살 수 있는것들은 싸지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가기전에 가는 지역의 기후를 알아보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분량 자유)*

벌써 교환학생을 갔다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고 엇그제 미국에 도착하여 생활을 한것같은데 정말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교환학생을가서 한국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정말 많이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교환학생을가서 정말 현명하게 노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외국인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현재는 영어공부를 하고 있고 한 학기 휴학을 한 후 그 기간동안 제가 하고싶은일과 관련된 자격증을 딸 계획입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Cultural fair



중동친구들과 카레이싱



Hmong panel



CHUSA(Hmong 동아리)



친구와 라스베이가스



학교에서 개최하는 축구대회에 참여